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 · 상 · 배

Q & A



• 이상배 위원장 약력

- 3선의원(15~17대)
- 1961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 1966 울진군수
- 1979 내무부공보관
- 1982 대통령 정부 비서관
- 1986 경상북도 도지사
- 1988 환경청 청장
- 1990 대통령 행정수석 비서관
- 1991 총무처 장관
- 1992 서울특별시 시장
- 2000 한나라당 경상북도지부 위원장
- 2002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위원장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시고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3선을 하시고 지난해 8월말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셨다.

1961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에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셨고, 스물일곱에 울진군수로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고, 이후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내무부차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과,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을 오로지 행정에만 몸담은 정통 행정관련출신이다.

특히 병술년에도 우리 인삼·약초업계의 숙원인 「인삼발전기본법」 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시다.

〈편집자주〉

Q DDA, FTA 등 WTO 체제하에서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쌀 비준안 통과와 FTA, DDA협상 등이 이어지면서 농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방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특정산업과 특정계층에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산업은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농산물은 수입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 이것이 바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특별한 희생인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 약자에게 고루 분배 하듯이,



이제 개방화의 과실을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즉,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의 농촌유인, 열악한 환경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도시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부는 개방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문제와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노력 없이는 시장개방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농업인 스스로도 친환경·기능성·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농민들이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므로서 많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위원장님께서서는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다른 선택 작물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쌀 비준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당장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충격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쌀 생산과 유통체계에서 선불리 시장을 개방했다가는 우리 쌀농업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인들도 이제 걱정과 불만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어렵사리 얻은 10년이라는 개방 유예기간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년을 농업경쟁력에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쌀을 비롯한 농업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농업인단체와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우리 농업현실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인들은 정부 지원만을 요구하는 그간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체질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농산물의 품질개선과 고급화방안을 연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쌀 시장 개방에 따르는 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25만ha의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작물과 콩, 과수 및 인삼, 연근, 미나리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체작물을 선택해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Q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날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A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에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스물일곱에 울진군수로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고, 이후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내무부차관,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총무처 장관,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을 오로지 행정에만 몸담았습니다.

제가 묵묵히 공직의 외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정직과 청렴을 몸소 실천하셨던 선친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공직시절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하루는 관용차를 얻어 타고, 고향집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선친께서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보시고는 “이 차를 동네 밖으로 빼거래! 동네 어른들이 너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청렴

한 것이 관리의 본디 모습인데, 잠시 빌린 차건, 네 차건 간에 고향에까지 차를 타고 오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시며 벼락과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런 선친의 영향인지 적은 재산에도 만족하고, 부유하기보다는 넉넉하게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며 공직생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너무 딱딱한 공식적인 질문만 드린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은 몇이나 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가족은 집사람과 장성한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지금껏 공직생활과 정치인으로 활동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며, 두 아들은 금융계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WTO 체제 출범과 최근에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추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인삼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삼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현재 우리나라는 인삼 재배면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중국과 파종·수확을 기계화한 미국·캐나다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수입량은 2004년 179톤에서 지난해에는 300톤으로 늘어났고, 해마다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DDA협상과 FTA협정 진행이 인삼의 관세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인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수출의 경우 그간 서양삼과 중국삼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다행히 2003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1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출 시장 다변화가 미흡하고, 차별화된 시장별 전략이 없어 현재의 증가추세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의 안전성, 품질의 신뢰성,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삼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삼의 경우 농약오염 등의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법유통의 근절, 우리 인삼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은 물론, 인삼연구의 체계화를 통한 인삼산업의 발전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인삼 계열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안정과 가공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시장 개척, 수출시장의 다변화, 국제 홍보활동의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Q 올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저는 지난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농촌의 대표 전통식품 육성을 위한 '전통술산업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1차 생산에만 국한되어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블루오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2차산업을 결합한 전통식품산업이나 농업과 3차산업을 접목한 농촌체험관광 등이 유망한 품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6년에는 전통술산업육성지원법의 조속

한 국회통과를 시작으로 농업과 2차, 3차산업을 결합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인삼경작자 및 인삼과 관련된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인삼업계 관계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인삼산업은 우량 초작지의 고갈, 농촌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의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파종과 수확을 기계화한 미국·캐나다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삼의 효능은 한반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 토질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감히 넘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경쟁력이자 자량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인삼의 경쟁력은 풍족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하는 가운데 얻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삼산업 관련 농업인과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새해에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도전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자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